

한전, 문화예술 후원 최우수 기업 공공기관 첫 대상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 문화예술 후원 최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한국메세나대회'를 열었다. 메세나(Mecenat)란 로마제국의 문예 보호에 공헌한 정치가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란 뜻의 프랑스어로,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메세나 대상'에 한전이 선정돼 시상식 출범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수상했다. 한전은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문화공헌상과 메세나인상은 각각 신한카드와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이 받았다. 창의상은 현대백화점이,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상'은 에몬스기구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진행됐다. 지난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 223쌍 가운데 대기업 결연을 대표해 신세계와 한빛예술단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와 극단 아리랑이 기념패를 받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지난해 지원금액 79억원을 달성했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천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원에 이른다.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한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

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라보게 깔끔해졌네' 춘천 풍물시장 전력 설비 지중화

한국전력공사 강원분부는 전력 설비 지중화를 통한 춘천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전 강원분부는 지난해 초 춘천시와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3월에 착공, 10월 말 준공했다.

사업비 약 10억5천만원은 한전과 춘천시가 절반씩 부담했다. 이봉희 한전 강원본부장 등 한전 관계자들과 협력회사 관계자, 상인회장은 합동 준공검사를 했다.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풍물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춘천시가 추진하는 '찾고 싶은 전통 시장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 KBS한전음악콩쿠르 시상식
2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들이 춘천연탄은행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구매한 560만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했다. 3 한국전력 사육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 직류송전방식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브라질, 스웨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입니다.

국내에는 제주와 해남을 연결하는 선로를 시작으로 '98년부터 약 2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직류송전,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류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파동(주파수)이 없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